

류승현 “캠프서 배운 스윙 대만서 완성하겠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류승현이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펑고를 받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소연 ‘유종의 미’

LPGA 투어 최종전 3위



유소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유소연은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천55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브리트리 린시킴(미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박성현(25)과 함께 공동 수상한 유소연은 올해는 6월 메이저 클래식에서 한 차례 우승한 바 있다. 렉시 톱슨(미국)이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 짧은 파퍼트를 놓쳐 다 잡은 듯했던 우승컵을 눈앞에서 날려버린 톱슨은 1년 만에 결국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약 5억6000만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태국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은 12언더파 276타,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전에 이미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최다 톱 10 진입 등 주요 부문 1위를 확정된 쭈타누간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평균 타수 타이틀도 추가했다.

쭈타누간은 이번 시즌 69.415타를 쳐 69.747타의 이만지(호주)를 따돌리고 배어 트로피 수상자가 됐다. 또 한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CME 글로벌 포인트 부문에서도 1위를 굳혀 보너스 100만 달러를 가져갔다.

CME 글로벌 포인트 대상이 신설된 2014년부터 한 선수가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CME 글로벌 포인트 대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은 올해 쭈타누간이 처음이다. 세계 랭킹 1위인 쭈타누간은 2016년에도 상금, 올해의 선수, CME 글로벌 포인트 1위를 독식했으나 평균 타수 1위는 전인지에게 내줘 전관왕 달성을 아쉽게 놓쳤다.

박성현은 6언더파 282타,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올해의 선수, 상금왕, 신인상 등을 휩쓸었던 박성현은 올해는 다승 부문에서 3승으로 쭈타누간과 함께 최다승을 기록했다.

이날 끝난 2018시즌에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32개 대회 가운데 9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男 펜싱 사브르 최강 확인

새 시즌 첫 월드컵 단체전 우승

지난 시즌 세계랭킹 1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으로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로운 시즌 처음 나선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오상욱(대전대), 김준호(화성시청), 하한솔(국군체육부대)로 팀을 꾸린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45-3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시즌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 김준호가 호흡을 맞춰 단체전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네 선수가 이번 없는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 자신의 첫 월드컵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한 하한솔은 2관왕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캠프서 첫 이탈... 오늘 귀국
24~내달 16일 쯤 윈터리그 참가
올 시즌 기록에 1·2군 오가
타격 폼·수비 등 집중 훈련
“캠프서 익힌 것 경기서 시도”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류승현이 대만으로 '2차 캠프'를 떠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KIA의 마무리 캠프에 첫 이탈자가 발생했다. 내야수 류승현이 20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간다.

중도에 귀국이지만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류승현은 오는 24일 대만에서 개막하는 2018 아시아 윈터 베이스볼리그(이하 윈터리그) 대표에 선발되면서 2019시즌 준비를 위한 무대를 옮기게 됐다.

경찰야구단 유승안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KBO연합팀에는 역시 경찰야구단에서 군 복무 중인 고장혁, 김호령, 이진영 등도 참여한다. 윈터리그는 이달 24일 개막해 내달 16일까지 계속 된다.

윈터리그에 참가하는 류승현은 “안 다치는 게 1차 목표다. 시합을 뛰게 되면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실력이 늘어서 오는 것이 목표다”고 언급했다.

류승현은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수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올 시즌 입단 3년 만에 1군 무대를 밟은 류승현은 데뷔전에서 타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6월 3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날리며 바로 데뷔 안타를 기록했다. 그리고 2사 1·2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이어가며 데뷔전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도 올렸다. 그리고 이어진 박준태의 홈런 때 홈에도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수확했다.

류승현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이날 세 타석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이 경기 포함 올 시즌 35타석에 나온 그는 0.307의 타율과 함께 홈런 하나도 기록하면서 팬층은 타격 실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류승현의 거침없을 것 같던 첫 시즌은 수비에 제동이 걸렸다.

류승현은 데뷔전에서도 수비 실수를 하는 등 첫 시즌에 4개의 실책을 남기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뜨거운 타격에 비해 부족한 수비 탓에 류승현은 1군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못했다.

류승현은 “올 시즌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 아

쉬움도 많이 남는다. 시즌 끝까지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수비가 역시 가장 아쉽다”고 올 시즌을 평가했다.

수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마음가짐’이다.

류승현은 “코치님들이 수비는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라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말씀해주신다. 올 시즌에는 수비할 때 여유가 없었다. 대만에서 2차 캠프를 하게 됐다. 열심히 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윈터리그에서 오키나와 캠프에서 준비한 빠르고 강렬한 타격도 시도하면서, 완전한 스윙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류승현은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타격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었다. 빠른 스윙과 손목을 활용한 타격이 류승현이 이번 캠프에서 배운 것들이다.

류승현은 “스윙폼에 변화를 줬다. 스윙을 짧게 가져가고 있고, 손목 각도 살려서 타격하고 있다. 타격은 자신 있다. 좋은 모습 보이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캠프 T 특보

박경태 스파이크 본 황인준 “형이 유물 신고 왔다”

▲유물을 신고 왔어요 = 후배들을 깜짝 놀라게 한 마무리캠프단 ‘최고참’이다. 1987년생인 박경태는 이번 캠프의 ‘맏형’이다. 19일 불펜 피칭을 끝내고 마무리 운동을 하던 황인준, 박정수, 박지훈, 스파이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이들의 눈길이 “경태형이 유물을 신고 왔다”는 황인준의 말에 일제히 박경태의 발로 향했다. 박경태는 “2012년에 지급받은 스파이크다. 아직

별정하다”며 후배들을 놀라게 한 스파이크를 보여줬다.

▲룸메이트는 맞는데 = 내야수 류승현은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외야수 박준태와 룸메이트를 구성했다. 쉬는 날 룸메이트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은 받은 류승현은 “룸메이트는 준태 형인데 쉬는 날에는 친구들하고 보낸다”고 웃었다. 류승현

은 “준태 형이 쉬는 날에는 방에만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류승현은 2016년 입단 동기인 최원준, 신범수와 함께 단짝이다.

▲미끄러지고 = KIA 선수들은 19일 비 덕분에 오전 휴식을 얻었다. 이날 오전 예대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선수들은 숙소에서 점심을 먹은 뒤 훈련이 진행되는 킨 구장으로 이동했다.

훈련 중간중간 강한 햇볕이 내리 쬐기도 했지만 간만에 내린 비로 경기장이 젖어있어 선수들은 조심스럽게 훈련을 진행했다. 주루 훈련 도중 이창진이 미끄러지자 김민호 총괄 코치는 “미끄러지고 했다. 평소의 의욕적으로 달리라”고 웃으며 선수들의 부상을 경계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VP 김재환·신인왕 강백호

김, 0.334 타율·29홈런...강, 좌타자 신인 최다 29홈런

2018 KBO 시상식

올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잠실 홈런왕’ 김재환(30·두산 베어스)이었다. 최우수 신인선수상의 영예는 ‘괴물’ 강백호(19·kt wiz)에게 돌아갔다.

김재환은 19일 르메르디앙서울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가 KBO 시상식에서 생애 처음으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KBO리그를 취재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김재환은 888점 만점에 가장

많은 487점을 받았다.

팀 동료인 투수 조쉬 린드블럼이 367점,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박병호가 262점으로 뒤를 이었다. 역시 두산 소속인 포수 양의지(254점), 투수 세스 후랭코프(110점)가 4, 5위에 올랐다.

김재환은 MVP 트로피와 330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7를 부상으로 받았다.

2011년 말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2012년 1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던 김재환은 올해 리그 최고의 타자로 거듭나며 두산의 정규시즌 우승에 큰 힘을 보탤다.

그는 정규시즌 139경기를 뛰면서 타율 0.334



김재환



강백호

(527타수 176안타)에 44홈런 133타점 104득점의 성적을 냈다.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장타율 2위(0.657), 타율 10위에 오르는 등 리그 최정상급의 타격 솜씨를 뽐냈다. KBO리그 최초로 3년 연속 타율 3할·30홈런·100타점·100득점과 3년 연속 300루타도 달성했다.

최우수 신인선수를 뽑는 기자단 투표에서는 555점 만점에 강백호가 514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넥센 내야수 김혜성(161점)을 여유있게 제쳤다. 3위는 101점을 받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이었다.

강백호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 시절 투수 겸 포수로 뛴 강백호는 2018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kt의 지명을 받았다. kt에서는 좌익수를 맡으며 13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0(527타수 153안타)에 29홈런 84타점 108득점, 장타율 0.524, 출루율 0.356의 성적을 냈다.

강백호는 데뷔 첫 타석에서 2018 KBO리그 1호 홈런을 터트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역대 최고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을 기록한 그는 10월 9일 수원 한화전에서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 김기태의 27홈런을 넘어서고 좌타자 신인 최다홈런 기록도 새로 썼다. /연합뉴스